

초의선사 탄생 220주년 기념

차 교육관 문열어

학술문화제·차음식 맛보기 등 행사 다채

다성(茶聖) 초의선사 탄생 문화제가 6월 3~4일 양일간 전남 무안군 삼향초의선사 탄생지에서 열렸다.

초의선사 탄생 2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문화제는 초의선사 다(茶) 교육관 준공식, 초의종상 헌다제, 초의학술문화제, 각종 차관련 음식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지난 4일 초의학술문화원 이사장 용운 스님, 박종연 전남지사, 서삼석 무안군수, 차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관 준공식에서 용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주말 여가선용을 위한 초의문화학교,

어린이·청소년 다도캠프 등 다양한 다도 프로그램을 연중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된 교육관은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담아 건립됐다. 81평 규모의 교육관은 바깥쪽 기둥 높이 15자와 내부 기둥 높이 19자는 각각 출가와 득도 때 나이를 나타낸다. 또한 문짝은 법랍과 같은 65개이며 문에는 초의선사가 선과 차에 몰두하며 차 제조법을 전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나무가 썩거나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마감 처리도 차 씨앗을 짜 만든 녹차 기름을 활용했다.



초의선사 동상 앞에서 열린 현대의식에서 초의학술문화원 이사장 용운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준공식에 이어 교육관 2층에서 열린 '초의선사 학술세미나'에서 '초의의선의 선 사상(원광대 김영도교수)' '초의선사의 법복에 관한연구(유복열 박사)' '초의선사의 제다법 고찰(용운 스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열린 문화제에는 초의선사 헌다제와 1000여점의 떡차, 108가지 다식 등 각종 차 관련 음식이 선보였으며 자기나무심기, 초의찾간빛기, 초의차제다법 등 체험행사가 펼쳐졌다.

글·사진/무안=이준엽 기자



법주사 오리숲 황토로 새 단장

속리산 법주사(주지 도공) 오리(五里)숲이 아스팔트 포장을 벗고 황토길로 단장됐다. 법주사는 6월 8일 오후 2시 이원종 총부도지사 등 지역 기관장과 법주사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토길 개통식을 가졌다. 새로 단장된 법주사 오리숲 황토길은 속리산관광호텔에서 법주사 입구까지 2Km이며 보은군의 특성화 상품인 황토를 이용한 환경공법으로 조성됐다.

일각 선사 10주기 추모법회

회광당 일각 선사 10주기 추모법회가 6월 3일 송광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계종립 방장 보성,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 대홍사 조실 현운 스님 등 문도 스님과 신도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성수 스님은 추모법회를 통해 "합계 수련도량을 가꾸고자 원력을 세우셨는데 다시 오셔서 만인이 깨달음을 얻는 도량을 건립하자"고 회고했다. 추모법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탑전 일각선사 부도를 찾아 탑돌이로 회향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농번기 시골 절에서 '국악 한마당' 인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농촌이기에 고급문화가 펼쳐져야 합니다". 호남평야를 바라보는 정토사 주지 원공 스님의 주장이다.

이러한 스님의 원력에 따라 6월 3일 정토사에서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통정악과 창작 국악 뮤지컬이 선보였던 것이다.

무대는 정토사 신도와 지역문화인들로 구성된 정토문화마당이 준비했고, 농사중 바쁘다는 모내기철이건만 4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정음 정토사서 국악 뮤지컬 공연

연 2회 수준높은 문화마당 펼쳐

첫 무대에서는 최귀인 가곡 이수자(무형문화재 8호)와 나순철 전통정악회 이사가 출연해 여장시조, 가곡, 사설 등을 펼쳐보였다.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타루'는 창작 국악 뮤지컬 '구지이야기'를 공연했다. 국악 뮤지컬은 여는 국악과 달리 4명의 국악배우가 극 형식으로 펼쳐는 무대

로 사찰에서 공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년전 시작된 정토문화마당은 매년 봄·가을 지역민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꾸미고있다. 그동안 유림 중세음악을 연주하는 프랑스 원전 연주단 초청공연, 독일 음악가 초청 클래식 고전음악회 등 시골에서 흔치않은 문화마당을 펼쳐왔다.

지역민과 700여년을 함께해온 농촌의 작은사찰 정토사는 문화마당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엽 기자

25년간 불교철학 강의한 강건기 교수 퇴임 강연

전북대 강건기 교수(철학과·사진)가 대학 강단에서 25년간의 불교철학 강의를 마치고 정년퇴임한다. 전북대 철학과는 퇴임하는 강 교수를 위해 6월 2일 전북대 인문과학대학 회의실에서 고별강연 자리를 마련했다. 강 교수의 퇴임강연을 요약 정리했다.

“서구 이원적 사고에서 현대사회 위기 시작”

오늘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과학과 물질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세계이다. 과학과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물질적 풍요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참으로 잘 살고 있는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데에 바로 현대의 고민이 있다.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대야말로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핵전쟁의 위험, 도덕질서의 붕괴, 환경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대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전 생물에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모든 것을 돌로 보는 서구의 이원적 사유에 있다. 서양적인 사고는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생명, 인간과 자연을 돌로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같은 피조물이 라고 하면서도 다른 생명을 '부리러'고 했으며, 자연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서는 평화와 공존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도덕질서가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생명, 인간과 자연을 돌로 보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는 지금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삶의 지혜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가 요청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지혜는 인간이 본래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이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이 과학과 물질을 부릴 수 있는 주인자리를 회복할 수 있으며, 다른 생명과의 단절된 관계를 조화롭게 회복할 수 있다.

불교는 어떤 종교나 사상, 철학보다도 새로운 삶의 지혜를 잘 제시할 수 있는 종교이다. 왜냐하면 불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생명, 인간과 자연을



돌이 아니라, 본래 더불어 '하나'로 존재한다는 생명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인 생명사상은 공존과 평화, 조화의 사상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위해서 어떤 하나인 사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교는 바로 그런 하나인 바탕에서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찾고 있다. 그런 '하나'인 세계를 구현하는 길이 바로 불교이다. 따라서 불교는 자기회복, 인간회복의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21세기 문명의 등불이 되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리=이준엽 기자

강건기 교수는 1966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1979년 뉴욕대 철학박사 학위 수여, 1981년부터 전북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1988년 전북불교대학 설립, 저서로 <불교의 만남> <미음 뒤는 길> <목우자 지불연구> 등 다수가 있다.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Advertisement for Buddhist sutra sets. Includes text: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한글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500세트 한정판매', '400세트 한정판매'.